

2023. 3. 30.(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29일 오후 14:2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이 성 은	02-2133-5005	
양성평등안심팀장	장 윤 모	02-2133-5028	
담 당 자	김 지 현	02-2133-503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사업실	정책사업본부장	이 효 정	02-810-5042
	양성평등사업실장	최 자 은	02-810-5024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장	이 은 정	02-810-5700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전략연구실	도시전략연구실장	조 혜 림	02-6912-0942
	수석연구원	김 준 철	02-6912-097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사업실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전략연구실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9쪽

서울시 전국 최초 인공지능(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자동 추적감시

- 오세훈 시장, 29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1주년 기념식 및 현장간담회
-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이 한번 클릭으로 피해영상물 즉시 검출, 삭제, 재유포 차단
- 육안 판독시 1~2시간 정도 걸렸던 검출속도 3분 내외로 확 단축, 정확도 200%↑
- 개관 1년 간 총 7,682건 피해자 지원...피해영상물 3,003건 삭제해 유포불안 해소
- 10~20대 피해자가 전체 57% 차지...올해는 아동·청소년 피해 예방에 주력

평소 연예인이 꿈이었던 A(23세)는 작년 3월 사회관계망(SNS) 다이렉트메시지로 드라마 출연 제의를 받았다. A는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기획사 관계자의 말에 전신을 탈의한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성폭력이 발생했다. 또한, 드라마 출연을 빌미로 금전적 피해도 입었다. A는 가해자가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지인들로부터 사회관계망(SNS)에서 A로 추정되는 사진을 봤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센터는 불법성인사이트 5곳과 사회관계망(SNS) 12곳에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정황을 포착했고,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특정돼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사건 직후 극심한 불안감으로 직장까

지 그만둔 A는 센터의 긴급 의료지원과 심리상담을 병행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회복하는 중이며, 센터의 취업 지원으로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이하 ‘센터’) 개관 1년을 맞아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24시간 디지털성범죄 자동 추적·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 비전 2030’의 하나로, 작년 3월29일 개관했다. 제2, 제3의 n번방 피해를 막는다는 목표로 영상물 삭제부터 법률지원, 심리·치유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원스톱 통합지원한다.

□ 인공지능(AI) 기술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와 관련된 각종 사회관계망(SNS) 상의 피해 영상물을 자동으로 검출, 보다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는다.

○ 기존에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특이점을 육안으로 판독해서 수작업으로 찾아내는 방식이라면, 앞으로는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이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 번 클릭만으로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피해 영상물을 즉시 찾아낸다.

□ 사회관계망(SNS) 특성상 전파·공유가 쉽고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피해 영상물이 재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신속하게 삭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 작년 7월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올해 3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불과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기존 1~2시간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검출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정확도도 200% 이상 향상된다.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가 축적될 수록 정확도와 속도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프로그램 활용 전/후 변화되는 피해자 지원환경〉

- 인공지능(AI)이 영상물을 찾아내기 때문에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삭제지원관이 피해 영상물을 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
-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함께 올해는 아동·청소년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피해자나 가족의 신고없이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는 피해 영상물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 본인이 삭제를 요청해야 삭제지원이 가능한 성인과 달리,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당사자나 부모님의 신고 없이도 즉시 삭제가 가능한 만큼, 인공지능(AI) 추적·감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친숙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뤄지는 교육 콘텐츠를 정보통신(IT) 기업과 협업해 개발하고,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서포터즈 활동도 추진한다. 가해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개관 1년 간 총 7,682건 피해자 지원·피해영상물 3,003건 삭제해 유포불안 해소>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긴급상담부터 수사·법률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을 통해 지난 1년 간 402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총 지원 건수는 7,682건에 이른다. 시가 지원한 피해자의 연령대는 10~20대(약 5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중 10대 비율은 16.6%였다.

- 피해유형별로는 유포불안(23.1%), 불법촬영(20.1%), 유포·재유포(14.5%) 순이었다.

- 피해 영상물은 총 3,003건을 삭제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1,608건(54%)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924건의 수사를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검거·특정하는 성과도 거뒀다. 574건의 법률·소송, 507건의 심리치료도 지원했다.

<오세훈 시장, 29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1주년 기념식 및 현장간담회>

-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29일(수) 14시20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동작구 서울여성가족재단 내)에서 개관 1주년 기념식을 갖고,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 자리에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와 경찰,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가, 디지털성범죄 안심 서포터즈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오세훈 시장은 기념식 직후 이수정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 안심 서포터즈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향후 센터의 방향성 등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 간담회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지난 1년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변호사, 경찰에 대한 서울시장 유공자 표창도 이뤄졌다. 수사·법률 피해지원에 앞장서 온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김현아, 서혜진 변호사 뿐 아니라 센터와 협력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피해자 연계를 지원한 김문영, 조찬아, 신현재, 손소영 경찰관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 조찬아 수사관은 피해자만 191명인 공공장소 불법촬영 사건의 가해자를 검거해 불법촬영물의 재유포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센터에 연계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시민 등은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 나 카카오톡(검색 : 지지동반자 03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1. 센터 1주년 기념식 및 현장간담회 행사개요

2. 2023 새롭게 바뀌는 인공지능(AI) 삭제지원 프로그램
3.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 실적
4.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식 및 업무협약 사진(참고)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 및 현장간담회 개최

□ **추진개요**

- 일 시 : 2023. 3. 29(수) 14:20~15:05(45분) ※ 1주년(3.29일)
- 장 소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참 석 자 : 오세훈 시장, 이수정 교수, 경찰, 시민 등 관계자 200여명
- 주요내용 : 센터 1주년 기념식, 현장 간담회 운영
 - (기념식) 인공지능(AI) 딥러닝 삭제기술 시연, 인사말씀,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 (현장간담회)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심각성과 서울시 역할’ 현장간담회

□ **진행순서(안)**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직원격려	14:20~14:22(2')	• 센터 직원 격려	행사장 입 구
기념식 (1부)	14:23~14:24(1')	• 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 : 이은정 센터장)	서울여성 가족재단 3층
	14:24~14:27(3')	• 영상 상영	
	14:27~14:32(5')	• 인공지능(AI) 삭제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고 및 시연 (시장, 서울기술연구원 김준철 수석연구원)	
	14:32~14:35(3')	• 인사말씀(시장)	
	14:35~14:40(5')	• 피해자 지원 유공자 표창 (경찰, 변호사)	
현 장 간담회 (2부)	14:41~15:02(21')	• 시장-전문가-학부모 현장간담회(사회: 서혜진 변호사) - (현 장) 시장, 이수정 교수, 변호사, 학부모, 센터장, 안심서포터즈 대표, 경찰 - (진 행) 시장, 참여자, 시민 간 질의응답(21')	
	15:02~15:05(3')	• 1주년 기념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시장, 유공자 표창자, 시민 등)	

2023 새롭게 바뀌는 AI 삭제지원 프로그램

시스템 개념도(기술적 모형)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 정확한 탐지



GPU 기반 고속연산 + 24시간 모니터링



현행

AI 프로그램 도입시

피해영상물 검출속도 ⚡

관련 검색어 입력부터
피해영상물 탐지까지 1~2시간



입력부터 모든 피해영상물
검출까지 3분 내외

피해영상물 정확성 ✓

영상이미지 기반의 탐지가능
↓
관련 피해영상물 탐지범위 및
정확성 제한



영상+음성+텍스트 등 통합인식
↓
탐지범위 및
정확도 200% 이상 증가

모니터링 시간 📺

근무시간(8시간)에 한정된
모니터링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추적 시스템 구축
(근무시간의 재확산 위험성 ↓)

특히 선제적 삭제지원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불법영상물의 경우
AI 활용으로 이전보다
10배 수준의 삭제지원이 가능

2022년
2,500건



2023년
최대 25,00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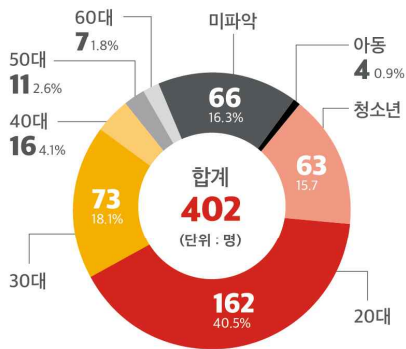
〈붙임 3〉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 실적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이후 피해 지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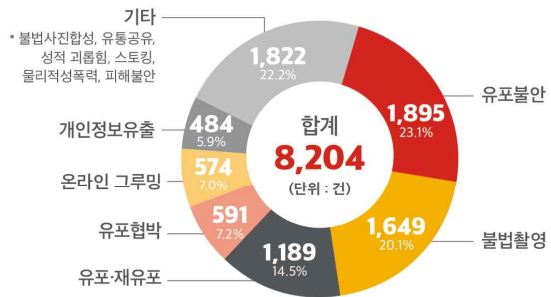
지원인원 총 402명

피해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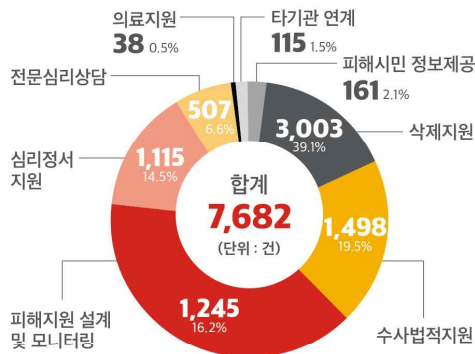


피해유형(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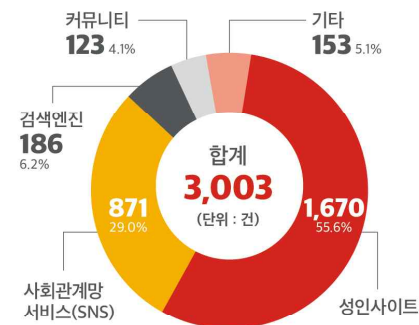
10대 유포협박·온라인그루밍 | 20·30대 불법촬영, 유포·재유포
40·50대 불법촬영 | 유포불안은 전연령에서 많은 피해호소



피해지원 실적



삭제지원 실적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시민 목소리

- 아직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어나는 법을 알아요. 관찮을거고 관찮아 질거예요.
- 혼자서는 여기까지 못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말에 힘을 얻었어요.
- 센터에서 심리치료지원이랑 꾸준히 상담을 받게 된 후로 안정감을 느꼈어요.
- 사람 살리는게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센터에서 연계해주신 변호사님 만나고 와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막막하고 어려웠는데 덕분에 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정말 너무 큰 도움 받고 있어요... 오늘도 바쁜 시간 내서 도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작년에 너무 힘들었는데, 피해지원관님이 이야기 들어주시고 직접 발 벗고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됐어요. 돌아보니 덕분에 조금씩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붙임 4〉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식 및 업무협약 사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식('22.3.29.)



법률·심리·의료지원 공동협력 협약('22.5.9.)